

금연 이슈리포트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ISSN 2508-8742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담뱃갑 건강경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담뱃갑 포장규제의 성과와 과제



CONTENTS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INFOGRAPHIC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포그래픽 담뱃갑 건강경고, 국민의 평가를 받다	02
MONTHLY UPDATES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달의 정책• 이달의 연구	04 06
MONTHLY HIGHLIGHTS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달의 이슈 담뱃갑 포장 규제의 성과와 과제	08
MONTHLY INDEX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달의 지표 담배가격	1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Vol.52., DECEMBER 2017

발행인 정기혜 기획총괄 선필호 구성·집필 김지혜·이정은·조윤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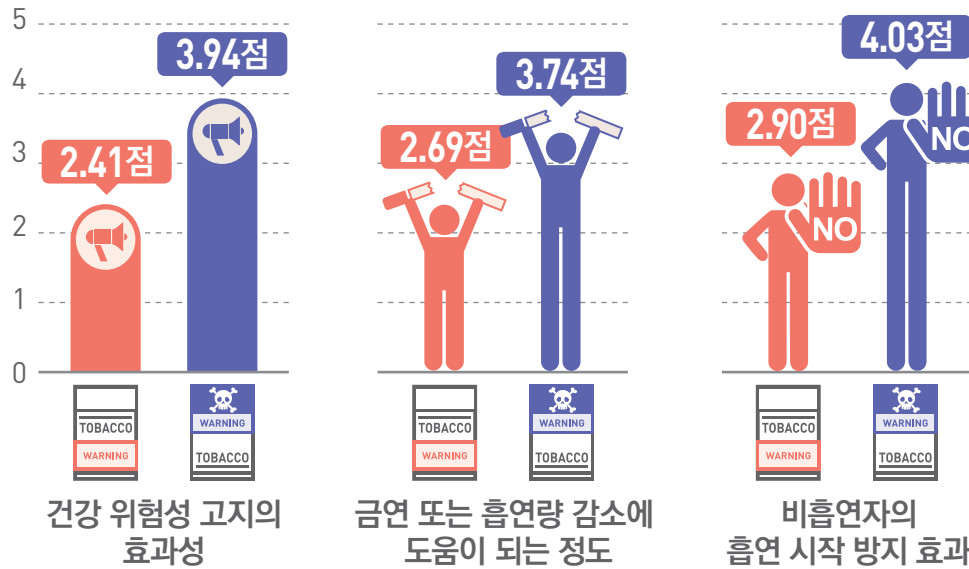
담뱃갑 건강경고, 국민의 평가를 받다

※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 국립암센터. (2017).

담뱃갑 건강경고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



■ 경고문구
■ 경고문구 + 경고그림



※ 5점 만점 기준, 효과가 낮으면 1점 ↔ 효과가 높으면 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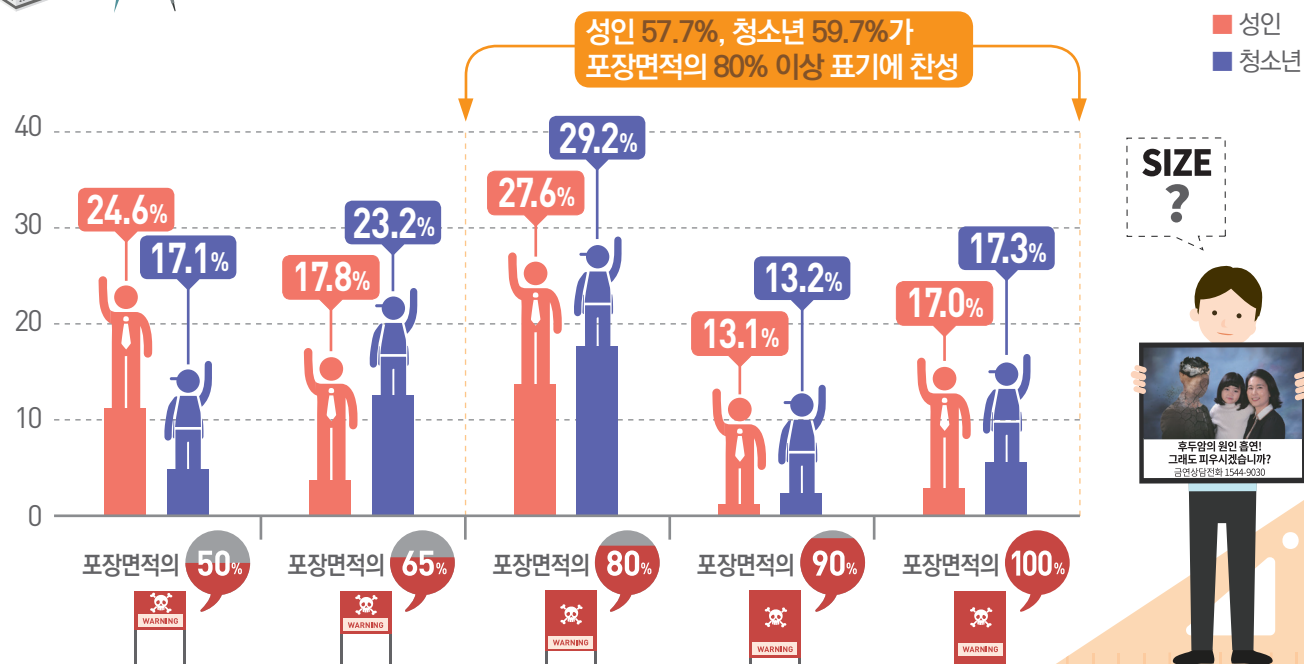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효과

금연상담전화 상담신청 및 정보이용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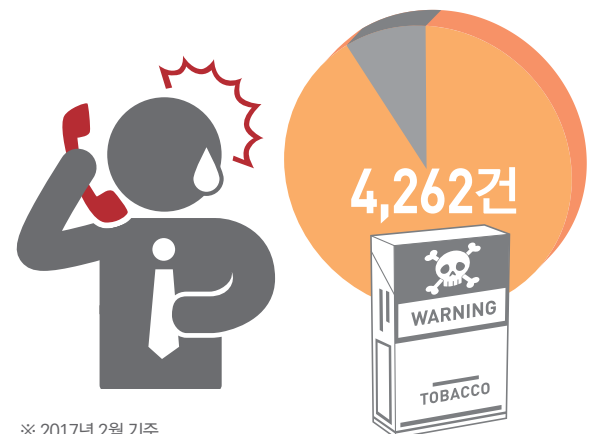
※ 2017년 2월 기준
※ 경고그림 시행 전 2016년 11월 대비

담뱃갑 건강경고의 적절한 표기 면적 의견조사 결과



금연상담전화 이용 계기

담뱃갑 때문, **81.9%**



※ 2017년 2월 기준
※ 전년 동월 대비 11배 증가

이달의 정책



미식품의약국, 담배회사의 광고 전략을 차용한 금연 캠페인 시행

미식품의약국(FDA)은 이달 11일 흡연자들의 금연 독려를 위해 금연의 건강상 이점을 강조하는 문구를 활용한 금연 캠페인 'Every Try Counts'를 발표하였다. 해당 캠페인은 2018년 1월부터 2년 동안 진행되며 미국 전역 35개 편의점에서 옥외 광고, 라디오 및 디지털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년도에 금연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25~54세의 흡연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주유소 및 편의점과 같이 흡연 유인 발생이 높은 소매점의 입구, 계산대, 진열대 등 실내 곳곳과 건물 주변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는 담배 소비가 발생하는 최접점에서 캠페인을 통해 흡연자들이 자신의 구매 의사를 재고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미식품의약국 스캇 고틀렙(Scott Gottlieb, M.D.) 국장은 "담배회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판매점 내부 진열 방식과 광고 전략을 통해 담배의 총동구매를 유발하고 금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전략으로 흡연자들의 총동구매를 억제하고 금연을 홍보하는 것이다. 식품의약국은 흡연자들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니코틴 중독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담배 관련 질병과 사망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식품의약국 건강교육홍보국 캐시 크로스비(Kathy Crosby) 국장은 "이 캠페인은 금연을 시도하는 모든 흡연자들에게 금연을 실패하더라도 시도한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금연이라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재도전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과거의 금연 시도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담배제품의 온라인 광고 금지 법안 발의

시온주의 연합(Zionist Union)의 이탄 카벨(MK Eitan Cabel) 의원과 리쿠드당(Likud Party)의 예후다 글릭(Yehudah Glick) 의원이 발의한 담배제품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광고 금지 법안이 24일 이스라엘 입법부 장관 회의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과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한 담배제품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인쇄 매체를 통한 광고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카벨 의원은 "법안이 효과적인 흡연 규제를 위한 강제력을 포함하지 않는 점이 약점이기는 하지만 젊은 세대가 인터넷 및 페이스북과 같은 매체를 통해 담배제품을 접하는 시간이 많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유익하다"고 말하며 "법안 초안에서는 인쇄 매체를 통한 광고 금지가 포함되었던 만큼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금지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에 따르면 법안에서 제외된 인쇄 매체는 유대교 연합(United Torah Judaism)에 의한 연립 협약의 일부로 인한 것이다. 이스라엘 금연예방협회의 책임자이자 수십 년간 담배규제법을 선도해 온 아모스 하우스너(Amos Hausner) 변호사는 "담배 광고를 허용하는 신문사들이 흡연 금지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인쇄 매체를 통한 담배제품 광고 금지는 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광고 금지도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광고를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차단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의 정책에서는 최근 한 달간 담배규제 정책의 도입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내·외 소식을 전합니다. 세계의 금연정책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모니터링하여 담배규제 분야의 최신 경향을 알아봅니다.



르완다, 물담배 제품 전면 금지

아프리카 르완다 정부가 물담배(Shisha) 제품의 소비, 수입 및 판매, 광고 등 일체의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과거 르완다 정부는 물담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정해야 한다는 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물담배를 금지하지 않았으며, 르완다 내 1,200만 명의 흡연자 중 적어도 13%가 물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에 발표된 르완다 보건당국의 성명서에 따르면 2017년 12월 15일 이후로 르완다 영토 내에서 물담배의 소비뿐만 아니라 광고, 판매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금지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르완다는 우간다와 케냐에 이어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 지침에 동참하여 물담배 금지령을 시행한 세 번째 국가가 되었다. WHO는 2015년 권고문에서 물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물담배 사용자는 파이프를 통해 적어도 1~10개 이상의 일반담배 물질과 유사한 독성물질을 흡입하게 된다. 이러한 독성물질은 중독 증상, 심폐질환 및 암과 같은 질병과 연관되어 있으며 물담배 사용자의 체내에 적정 수준 이상 흡수될 경우 이와 유사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르완다 UN 클리닉 아반다 투케(Abanda Tueche) 전문의 또한 “물담배는 가향물질과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으며, 물담배를 40~80분간 흡입하는 것은 일반담배 100개비를 피우는 것과 동일하게 유해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켄터키 주, 퀄련과 씹는 담배 등 세금 인상 계획 발표

미국 켄터키 주 보건복지위원회는 2018년 총회에서 결연 한 갑에 부과되는 담뱃세를 1달러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켄터키 주는 2009년 담뱃세를 인상한 후 지금까지 담뱃세의 추가적인 인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세금 인상 대상으로 논의되는 담배제품은 퀄련과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가 해당되며 전자담배는 제외되었다. 루이스빌(Louisville)의 줄리 레이크 아담스(Julie Racque Adams) 상원의원은 주정부의 2년 단위 예산 중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로 발생하는 비용이 막대한 지출 요인임을 밝히며 “담뱃세가 증가하면 수천 명의 비흡연자가 발생하여 건강 문제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달러의 담뱃세 인상으로 2억 6천 6백만 달러의 추가적인 조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라이치필드(Leitchfield) 시의 스테판 메러디스(Stephen Meredith) 상원의원은 “담뱃세 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조세 수입의 90%는 주 단위 의료 프로그램 중 흡연 관련 질병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책정될 것이며, 남은 수입은 금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주 보건당국에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정부 입법자들은 켄터키 주 전역에 담배 연기가 없는 공공장소를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입안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달의 연구



세계적 고찰과 메타 분석을 통한 흡연율과 소득 수준과의 연관성

Casetta, B., Videla, A. J., Bardach, A., Morello, P., Soto, N., Lee, K. ... & Ciapponi, A. (2016). Association Between Cigarette Smoking Prevalence and Income Level: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Nicotine & Tobacco Research*. doi: 10.1093/ntr/ntw266

연구진은 이전 연구를 통해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흡연율과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담배 소비와 소득 수준의 연관성을 평가하고 이전의 연구 내용을 추적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하위그룹 분석에는 WHO 지역과 대륙, 국가 사망률, 성별, 연령, 편향위험 및 연구 발표 날짜가 포함되었다. 독립적인 평가자가 연구를 선정하고, 잠재적 편향을 평가하여 데이터를 추출했다. 연구진은 MEDLINE, EMBASE, CENTRAL, SOCINDEX, AFRICAN INDEX MEDICUS, LILACS 및 1989년부터 2013년까지 보고된 소득과 흡연 자료를 검색하였고, 메타 분석을 위해 13,583개의 기사를 검색하여 93개를 선정했다. 분석 결과, 흡연율 중간값은 17.8%(Range 3-70%)였으며 낮은 소득 수준은 높은 흡연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OR: 1.54; 95% CI: 1.35-1.68). WHO 지역별 기준으로는 아메리카(OR: 1.54; 95% CI: 1.42-1.68), 동남아시아(OR: 1.53; 95% CI: 1.10-2.00), 유럽(OR: 1.45; 95% CI: 1.29-1.63) 및 서태평양(OR: 1.32; 95% CI: 1.02-1.72) 지역에서 낮은 소득 수준과 높은 흡연율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1990년대 수행된 연구들과(OR: 1.48; 95% CI: 1.37-1.60) 2000년대 수행된 연구에서도(OR: 1.48; 95% CI: 1.30-1.64) 이러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낮은 국가 사망률 국가에서도 남녀 모두에게 나타났다(OR: 1.48; 95% CI: 1.37-1.60).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이 중간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흡연율을 보였으며(OR: 1.69; 95% CI: 1.49-1.92), 중간 소득 수준은 가장 높은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흡연율을 보였다(OR: 1.31; 95% CI: 1.20-1.43).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흡연이 저소득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으며, 공중보건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저소득 계층의 잠재적 불평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달의 연구에서는 최근 한 달간 발간된 담배규제 분야 학술자료 및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근거 기반의 담배규제 추진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연구 내용과 주요 결과 분석을 통해 살펴봅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흡연 여부와 외형적 매력의 상관관계

Skinner, A. L., Woods, A., Stone, C. J., Penton-Voak, I., & Munafò, M. R. (2017). Smoking status and attractiveness among exemplar and prototypical identical twins discordant for smoking. *Open Science*, 4(12). doi: 10.1098/rsos.161076

흡연은 피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부 노화를 증가시킨다. 본 연구는 흡연 여부와 외모에 대한 두 가지 실험을 통해 (1) 얼굴의 외모만으로 흡연 여부를 알 수 있는지, (2) 흡연이 얼굴의 매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구성된 일란성 쌍둥이 23쌍의 얼굴 사진과 흡연 여부에 따른 남성 평균 외모 한 쌍, 여성 평균 외모 한 쌍을 도출하여 총 25쌍의 일란성 쌍둥이 사진을 응답자에게 제시하였다. 응답자는 수요 특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과제마다 별도의 응답자를 모집하였으며, 각 590명과 580명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590명의 응답자들에게 25쌍의 일란성 쌍둥이 사진을 나란히 제시하고 어느 쪽이 흡연자처럼 보이는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실험의 경우 580명의 응답자들에게 쌍둥이 중 어느 쪽이 더욱 매력적인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실험 결과,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 모두 일란성 쌍둥이 중 실제 흡연하는 사람을 흡연자처럼 보인다고 지목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남성: 95% CIs=0.52, 0.54, $t(284)=-5.52$, $p<0.001$, 여성: 95% CIs=0.54, 0.56, $t(294)=-8.29$, $p<0.001$)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두 번째 실험 결과,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 모두 비흡연자인 사람을 더욱 매력적으로 생각했으며(남성: 95% CIs=0.43, 0.45, $t(294)=11.3$, $p<0.001$, 여성: 95% CIs=0.43, 0.45, $t(294)=12.0$, $p<0.001$) 응답자 성별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흡연이 얼굴의 외형적 매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얼굴 외모가 흡연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MONTHLY HIGHLIGHTS

DECEMBER 2017

이달의 이슈

담뱃갑 포장 규제의 성과와 과제

Effectiveness and a Way Forward of Packaging and Labelling of Tobacco Products



담뱃갑에 심장 수술 사진이 붙어 있고 “심장질환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단순히 글로만 경고문이 써 있던 담뱃갑에 실감나는 사진과 그림이 들어가게 된 것이 어느새 1년, 과연 이전의 담뱃갑과 비교하여 어떤 정책 효과가 있었을까? 국민들이 평가한 담뱃갑 포장 규제정책, 그 결과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기로 한다.



이달의 이슈에서는 담배규제 분야 주요 이슈를 선정, 국내·외 동향과 정책 현안을 다룹니다. 담배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국외 사례와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국내 금연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담뱃갑, 경고그림이 도입되다

전 세계 181개국 담배규제 정책의 기본적 틀을 제공하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은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사항들을 제11조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담배의 유해성을 전달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 건강경고(Health Warning)를 담뱃갑에 표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986년부터 담뱃갑에 경고문구만을 표기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2015년 5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6년 12월부터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표기하기 시작했다.

경고그림이 도입되기까지의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다. 정부는 2002년부터 13년간 경고그림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무려 11번에 걸쳐 추진한 바 있으며, 2014년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2015년 경고그림 법안이 통과되면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지나치게 혐오스러워서 안 된다'라는 정책 목적 자체를 저해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되는 일도 벌어졌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단 표기 의무화에 대한 제동도 걸렸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는 최대한 효과적인 포장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대응하였고, 최종적으로 지금의 담뱃갑 건강경고를 완성시켰다. 결연을 기준으로 총 10종의 건강경고, 즉 경고그림과 그에 해당하는 경고문구가 드디어 작년 12월 이후 반출되는 모든 담뱃갑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 규정



※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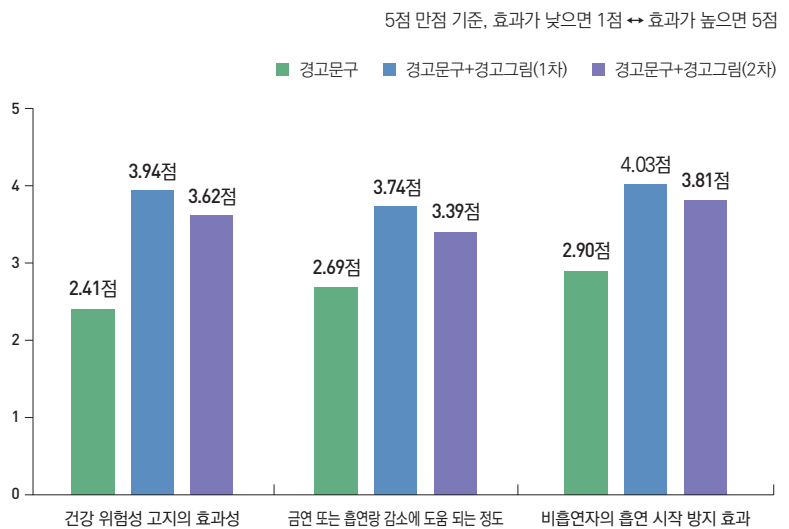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의 효과는?

그렇다면 많은 노력 끝에 도입된 담뱃갑 경고그림은 어떤 정책 효과를 가져왔을까. 먼저, 담뱃갑 경고그림이 시행된 직후 금연상담전화를 찾는 흡연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엿볼 수 있다. 금연상담전화 상담신청 및 정보이용건수는 2017년 2월을 기준으로 경고그림이 시행되기 직전인 2016년 11월에 비하여 약 2.2배가 증가했다. 또한, 그 중에서 금연상담전화 이용 계기에 대해 “담뱃갑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4,262건으로 전체의 8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1배 증가한 수준으로 담뱃갑 경고그림이 금연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향과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정책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2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동일한 성인 및 청소년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담뱃갑 경고그림 효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국민들이 경고그림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담뱃갑 건강경고(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주는 효과에 대한 점수 평가 결과(1차)에 따르면, 모두 경고문구만 표기되어 있는 종전의 담뱃갑보다 경고그림이 도입된 현재 담뱃갑의 효과가 더 높게 평가되었다. 흡연의 건강 위험성을 알리는 데 기존의 경고문구는 2.41점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 반면, 경고그림이 도입된 현재 담뱃갑은 3.94점으로 평가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담뱃갑은 경고문구만 있는 경우보다 금연 또는 흡연량 감소에 더 도움이 되며(3.74점 vs. 2.69점),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 방지 효과도 높다고 평가되었다(4.03점 vs. 2.90점). 한편, 5월에 실시된 2차 평가에서는 종전의 담뱃갑보다는 여전히 점수가 높지만 1차보다는 효과가 소폭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담뱃갑 건강경고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경고그림 주제별 효과 평가 결과의 경우, 효과에 대한 인식이 주제별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10종의 경고그림 중에서 성인과 청소년 모두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주제의 경고그림이 점수가 높았으며, 이를 통해 비병변 주제에 비해 병변 주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인과 청소년이 공통적으로 비병변 주제 중 피부노화와 간접흡연 주제의 경고그림을 효과가 낮다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성인은 성기능 장애, 청소년은 뇌졸중까지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그림 주제별 효과 평가 결과

5점 만점 기준, 효과가 낮으면 1점 ↔ 효과가 높으면 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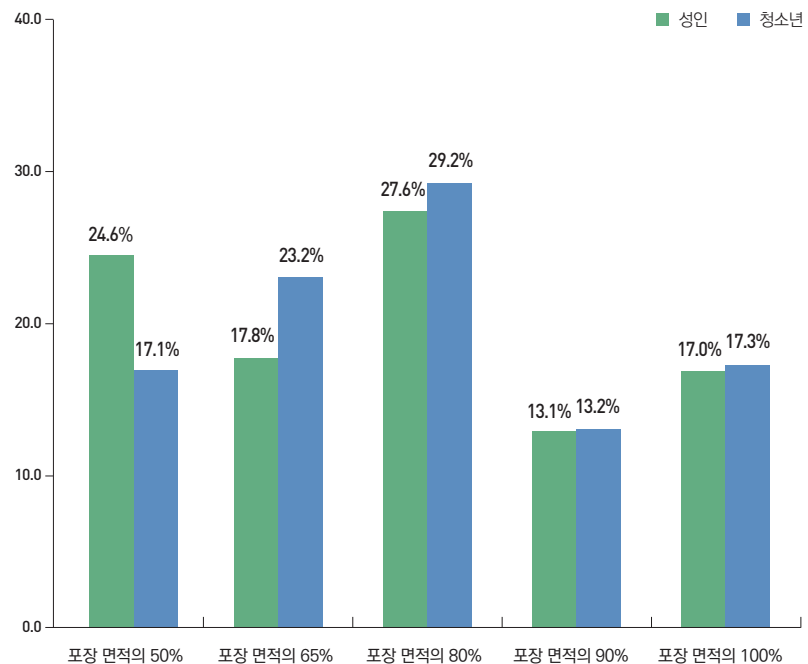
병변 주제	1. 폐암	2. 후두암	3. 구강암	4. 심장질환	5. 뇌졸중
성인	3.64점	3.96점*	3.97점*	3.71점*	3.52점
청소년	3.39점	3.80점*	3.67점*	3.55점*	3.02점**
비병변 주제	6. 간접흡연	7. 임신부 흡연	8. 성기능 장애	9. 피부노화	10. 조기사망
성인	3.29점**	3.47점	3.25점**	3.16점**	3.34점
청소년	3.12점**	3.21점	3.29점	2.97점**	3.23점

* 상위 3개, ** 하위 3개

※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담뱃갑 건강경고의 적절한 표기 면적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인 24.6%, 청소년 17.1%만이 현행기준인 포장 면적의 50%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고, 포장 면적의 80%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성인 27.6%, 청소년 29.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 면적의 80%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는 것을 볼 때(성인 57.7%, 청소년 59.7%), 국민들은 현재 담뱃갑 건강경고보다 더 큰 크기의 건강경고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담뱃갑 건강경고의 적절한 표기 면적 조사 결과



※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경고그림 시행 1년, 이후의 발전 방향

11번의 노력 끝에 13년 만에 성공적으로 도입된 담뱃갑 경고그림을 보다 효과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해답은 바로 앞서 살펴본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담뱃갑 경고그림의 정기적 순환을 통해 경고그림의 정책 효과를 유지 및 강화시켜야 한다. 경고그림을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이유는 경고그림에 대한 주목도와 관심도를 유지시켜 대중에게 경고그림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같은 내용의 그림과 문구가 일정 시간 이상 노출되면 대중이 반복노출에 따라 이에 적응하여 경고그림을 통한 각인과 정보 전달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WHO FCTC에서도 경고그림의 효과를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한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정기적 순환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WHO에서 권고하는 순환 주기는 12~36개월이며,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될 때마다 사전 고지를 통해 교체 기간을 확보하여 정책의 공백 없이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한다. 일정 기간 동안 노출되는 경고그림의 종류는 국가마다 상이한데, 대체적으로 8~12개의 경고그림이 법으로 지정된 순환 주기 내에서 동시에 표기될 수 있도록 하며 교체 시점이 도래하면 경고그림의 종류, 레이아웃, 디자인 등을 변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마다 고시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고시의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이에 현재 담뱃갑에 표기되어 있는 경고그림과 문구는 2018년 6월 23일에 발표되는 새로운 고시 내용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6개월 후인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뱃갑에 적용된다.

경고그림의 정기적 순환만큼 경고그림의 정책 효과 유지와 강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조치는 바로 경고그림의 면적 확대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면과 뒷면 각각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크기는 앞·뒷면의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다. 경고문구의 면적까지 포함하면 주요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WHO FCTC가 권고하는 최소 수준에 그친다. 실제로 FCTC 제11조 이행 가이드라인에서는 경고그림의 효과가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경고그림이 담뱃갑 주요 면적을 최대한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한다. 경고그림의 면적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 클수록 더 잘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뱃갑에서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는 면적이 커지는 만큼 담배회사가 화려한 디자인과 문구로 대중을 유혹할 수 있는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경고그림의 면적이 확대되면 경고그림의 가독성을 높여 경고그림이 전달하고자 하는 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효과와 더불어 담뱃갑 포장 디자인으로 인해 소비자가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호기심을 갖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큰 크기의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2008년에 당시 담뱃갑 면적의 50%에 해당하는 건강경고의 면적 확대 추진을 위해 크기별 효과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경고그림의 면적이 클수록 흡연의 위해에 대한 정보 전달 효과, 흡연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 흡연 시작 예방 효과, 흡연자의 금연유도 효과가 커지는 것이라고 나타났다. 2010년에 담뱃갑 경고그림의 면적을

담뱃갑의 50%에서 80%으로 확대한 우루과이의 경우에도 확대 전에 비해 확대 후 경고그림의 가독성,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인식 및 금연유도 측면의 효과가 높게 측정되어 경고그림 면적 확대의 실증적 근거를 뒷받침한다.

경고그림 크기별 효과에 대한 캐나다 국민(성인, 청소년) 조사 결과

9점 만점 기준, 효과가 낮으면 1점 ↔ 효과가 높으면 9점

건강경고 효과에 대한 인식	담뱃갑 주요면적에서 건강경고 차지하는 비율							
	50%		75%		90%		100%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흡연의 위험에 대한 정보 전달	5.0점	5.4점	5.7점	5.8점	6.2점	6.3점	6.7점	6.7점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4.9점	5.3점	5.6점	5.7점	6.0점	6.1점	6.5점	6.4점
흡연 시작 예방	5.2점	5.3점	5.8점	5.7점	6.3점	6.1점	6.7점	6.5점
경고문구가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신뢰 상승	5.1점	5.0점	5.7점	5.3점	6.1점	5.7점	6.5점	6.0점
흡연자의 금연 증가	4.7점	4.9점	5.2점	5.2점	5.7점	5.6점	6.0점	5.9점

※ 출처 : Les Études de Marché Créatec +. (2008).

경고그림 면적 확대 전(50%)→후(80%) 효과에 대한 우루과이 흡연자 대상 조사 결과

건강경고 효과에 대한 인식	면적 50%	면적 80%	면적 확대 전-후 비교
	%	%	OR
건강경고를 자주/매우 자주 인지함	64.5	72.3	1.44*
건강경고를 자주/매우 자주 읽음	40.5	49.2	1.42*
건강경고 때문에 위험성에 대해 종종/많이 생각함	31.5	43.3	1.66*
건강경고 때문에 금연을 종종/많이 생각함	20.6	31.3	1.76*
건강경고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함	12.1	24.4	2.35*
건강경고 때문에 담배 피우는 횟수를 줄임	1.9	6.1	3.42*
더 많은 건강정보가 담뱃갑에 표기되어야 함	28.3	28.8	1.03

* 통계적으로 유의함($p < 0.05$)

※ 출처 : Gravelly S, et al. (2016).

담뱃갑이 광고판이 되지 않는 그 날까지

담뱃갑은 단순히 담배라는 제품을 둘러싼 포장지 이상의 역할을 한다. 담배제품과 흡연이라는 행위에 대한 이미지, 상징성,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가장 최후의 단계이자 담배제품을 홍보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혹자는 담뱃갑을 담배회사의 세일즈맨(Salesman)이라고도 표현한다. 담배회사 역시 담뱃갑의 역할을 제품 포장에 아니라 담배구매와 흡연을 유도하고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성인층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더 이상 담뱃갑을 담배회사의 광고판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담뱃갑은 담배를 계속 팔아야 하는 담배회사와 흡연의 폐해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보건당국 간의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다. 화려한 디자인에 가려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더 크고, 더 자극적인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표기하고 있으며, 담뱃갑 포장지의 디자인과 규격을 아예 법으로 통일하는 이른바 규격화 무광고 포장(Plain/Standardised Packaging)의 도입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손바닥 크기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젠 강력한 의지로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

MONTHLY INDEX
DECEMBER 2017



이달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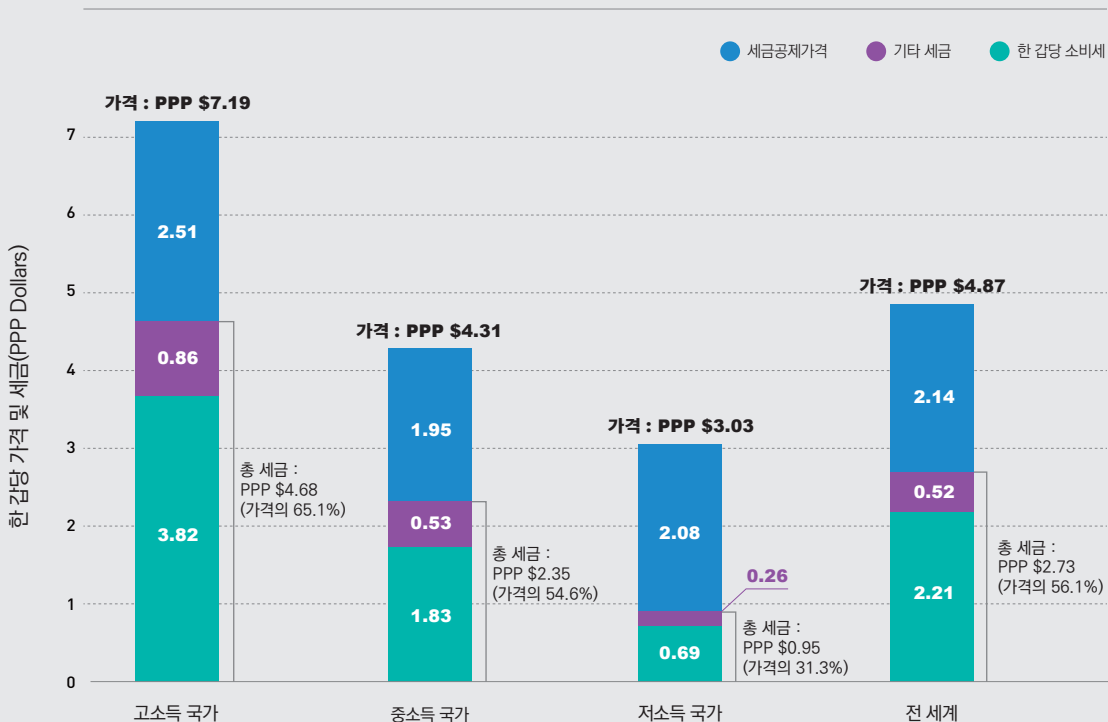
이달의 지표에서는 담배규제와 관련된 주요지표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여 금연정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월 선정되는 담배 규제 지표의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고 국내·외 금연정책의 동향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담배가격
Price of Tobacco Products

2017년에 발표된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 평균 담배 소매가격은 \$4.87(약 5,300원)으로 2014년 \$3.51에서 약 \$1.36가 증가하였다. 국가의 소득수준별 쉐련 평균가격은 고소득 국가가 \$7.19(약 7,800원), 중소득 국가가 \$4.31(약 4,700원), 저소득 국가가 \$3.03(약 3,300원)으로 소득수준별 담배가격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1989년 600원이었던 담뱃값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 2,500원까지 인상되었다가 2015년 1월에 이르러서야 10년 만에 4,500원이 되어 WHO 해당 보고서에서 \$5.38로 환산되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고소득국가 담배가격 평균과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도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가격조치를 추진하여 국가의 경제규모에 맞는 가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소득수준별 쉐련 평균가격 및 세금 비중(2016)



*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로 보정한 달러 기준

※ 출처 : WHO. (2017).



참고문헌

- 국립암센터. (2017). 금연상담전화 관련 내부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 오유미. (2016).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경과와 의의. 금연정책포럼 제10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금연이슈리포트 제34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금연이슈리포트 제39호.
- Gravely S, Fong GT, Driezen P, et al. The impact of the 2009/2010 enhancement of cigarette health warning labels in Uruguay: longitudinal findings from the 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ITC) Uruguay Survey. *Tob Control* 2016;25:89 - 95.
- Hammond D. (2009). Tobacco labelling and packaging toolkit: A guide to FCTC Article 11. University of Waterloo, Canada.
- Hastings GB, Moodie C. (2015). Death of a Salesman. *Tob Control* 2015;24:ii1 - ii2.
- Institute for Global Tobacco Control. (2013). State of Evidence Review: Health Warning Labels on Tobacco Products.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 Les Études de Marché Créatec +. (2008). Effects of modified packaging through increasing the size of warnings on cigarette packages. Prepared for Health Canada.
- Vathesatogkit P. (2017). Tobacco packaging and labelling in Thailand. Presentation at Global Forum on Tobacco Control. Korea. 30 Nov. 2017.
- WHO. (2008).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Article 11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WHO. (2017).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

구독신청

매월 금연이슈리포트(Tobacco Control Issue Report) 온라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주소로 소속,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해주시요.

홈페이지 : www.khealth.or.kr

구독신청 이메일 주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tcir@khealth.or.kr

2018년 예고

2017년 한 해 동안 금연이슈리포트를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연이슈리포트는 2018년에도 담배규제 관련 국내·외 이슈 및 동향을 정확하고 알 빠르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구독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